

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, 수질환경보전회 합동 환경정화 ‘구슬땀’

✎ 박창훈 기자 | ⌚ 승인 2023.12.04 19:56



[경안일보=박창훈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예천군 종산2저수지 일원에서 수질환경보전회 위원회 등 직원 12명이 모인가운데 ‘수질환경보전회 합동 환경정화 활동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.

이번 ‘수질환경보전회’는 한국농어촌공사, 지자체, 환경단체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우리 예천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와 지속 가능하고 청정 농업용수 수질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.

한편, 김종학 지사장은 “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수질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행사 및 수질환경보전회 운영과 주민이 더불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수질보전을

위해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와 주민참여 수질관리 확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며 지역주민께서도 수질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박창훈 기자 aaaa5007@gailbo.com



박창훈 기자 aaaa5007@hanmailn.net

저작권자 © 경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